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	다	같	이
기	원	.....	인	도	자
찬	송	..... 28장 .....	다	같	이
교	독	..... 32번 .....	다	같	이
신	앙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79장 .....	다	같	이
기	도	.....	이	창	걸
성	경	..... 마6:24-27 .....	다	같	이
특	송	.....			
설	교	..... 예수님은 누구 신가? .....	이	영	제
		(12.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찬	송	..... 539장 .....	다	같	이
헌	금	.....	다	같	이
봉	헌	..... 기도 .....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찬	송	.....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	이
축	도	.....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홀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 주양교회 24시간 릴레이 기도제목

### ○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양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반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포기를 위해서

###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 10:1-18 율법은 그림자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과 앞으로 오는 좋은 일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① 그림자 Σκιά(스키아)는 비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② 참 형상이 아니다. “형상” πραγμάτων(프라그마톤)은 “성취된,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슷하게 닮은 것이 아닌 실체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곧 성취되기 전의 복제품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를 다시 번역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제사지내는 자들이 한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요 제사지내는 것을 마쳤을 것이다]

“죄” συνείδησιν ἁμαρτιῶν(쉬네이데신 하마르티온) “양심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죄를 율법적인 제사로 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와 해마다 드리는 것을 비교하고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히8:12)는 말씀과 대조시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에 희생동물이 있어야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죄는 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동물의 목숨을 내대신 드렸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겠는가? “능히” ἀδύνατον(아뒤나톤)은 “무기력한, 무능한, 힘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40:6-8의 인용으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한다. μοι(모이) 대명사 단수 “나”를 사용하여 ‘우리’ 또는 ‘백성’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한다.

6절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제로 번제” ὀλοκαυτώματα(올로카우토마타) ‘전부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말한 것으로 구약의 다섯 종류(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의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를 포함한 것이다.

## 꿈에한 비행기 조정



이영재 목사  
주앙교회 담임  
한국기독교회 대표

어느 드넓은 광야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비행기가 한대 있었다.

나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비행기 조정을 배울 기회를 만날 것이다.

하루연습을 마쳤다. 그런데 연습시킨 교관은 없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나보고 혼자 비행기를 조정하고 오라는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배운 것을 하나 하나 생각해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저히 무리였다.

너무 많은 계기 판에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했다.

하루 배운 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다고 죽음을 불사한 무리한 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비행기를 못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바로 그 때 도움을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다.

나는 얼마면 그곳까지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분은 일행이 있는데 그분들만 함께 태워주면 같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일행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조종석에 앉았다. 도움을 주시겠다고 한 분을 교관으로 모시고 다시

연습하듯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다. 스위치를 넣으라고 하면 넣고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비행기를 조정해 나갔다. 나는 조종석에만

앉아있었지 조정하시는 분은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비행기에 함께 오른 일행은 우리교회 성도였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조정을 알려주시고 동행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

###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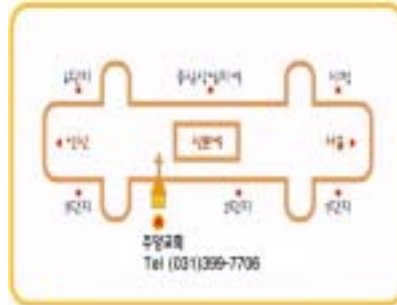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0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7:30 / 삼일예배(주제, 성경공부)

금요 오후 9:00 / 심야예배(찬양, 기도집회)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1. 나의 산 돌이신 예수님) / 본문 : 행전2:1-10, 사28:16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말할 때는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돌을 말할 때는 생명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앗(남편의 침) 싸움엔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은 생명력이 없음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남편이 바람을 피면 잠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 생명력이 없는 돌들로 사람들을 고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성과 찬양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함으로 이런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19:40)는 대답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없는 돌(자연)이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라는 뜻과 둘째는 제자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고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3:9)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전혀 없는 돌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그리스도를 가리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사28:16)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모든 시험을 다 거친 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4:1-11).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시기 전까지 생애 전체가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끊임 없는 시험 곧 넘어뜨리려는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는 바로 교회의 머리와 구원하시는 주되심과 동시에 향아리를 깨뜨리는 심판하는 돌과 같이 심판 주되심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십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산 돌’(반석)이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직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주(2003.9.14) 설교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mailto:webmaster@kcm.co.kr)